"재능에 노력 합쳐져야 최고의 결과 얻을 수 있어"

영암 출신 가수 하춘화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개관식 무대

6살부터 활동…최연소 앨범발매·최다 개인공연 기네스북
창작지원·신인가수 발굴 등 명예센터장으로 역할 다할 것

"가수는 타고난 목소리가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타고났다 하더라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죠. 타고난 재능과 노력이 합쳐져야 최고의 결과가 있는 법이에요."

'잘했군 잘했어', '날 버린 남자'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영암 출신 트로트 가수 하춘화(64)가 29일 고향 땅을 밟았다. 이날 문을 연 영암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개관식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다.

오는 2021년 데뷔 60주년을 맞는 그의 나이는 올해 64세. 아버지인 고(故) 하종오씨를 매니저 삼아 6살 때부터 앨범을 발표한 그는 최연소 앨범 발매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60주년이라는 말만 듣고 막연하게 저를 10~20세 정도 높게 보시는 분이 많아요. 제 스스로도 왜 6살배기 어릴 적부터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전 운명을 믿지 않지만, 가수가 된 것만큼은 제 운명이 아닐까 생각해요.(웃음) 훗날 이 기록은 5살에 데뷔한 마이클 잭슨이 깨버렸는데, 기록이라는 것은 뒷 사람들이 깨기 위해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분야를 시작하고 대성한 사람들을 보면 가족같이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하씨는 다양한 기록을 세운 것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1991년에는 총 공연 횟수 8000회를 기록하며 최다 개인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2006년 성균관대학교에서 예술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최초의 대한민국 가수가 되기도 했다.

"기록을 낸다는 것은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많이 힘들었지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죠.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참지 못하면 그걸로 끝난 것이고, 견뎌내면 좋은 결과를 받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난해 12월 그는 60주년 기념 음반을 발표했다. 타이틀곡은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로, 지난 2010년 창원·진해와 통합되며 지도에서 사라진 마산시에서 보냈던 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가사를 썼다고 한다. 58년 동안 42개의 정규 앨범과 2500여곡에 이르는 노래를 발표한 그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1집 음반의 타이틀곡이었던 '물새 한 마리'(1970)다.

"'물새 한 마리'는 제 첫 히트곡입니다. 지금도 이 곡을 부를 때면 '이 노래가 대중에게 내 이름을 각인시킨 곡'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요."

또 하씨는 지난 1987년 노래 '영암 아리랑'을 발표하며 영암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부모가 영암군 학산면 계천리 출신인 하씨는 영암과 인연이 깊다.

영암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도 하씨에게는 의미 깊은 곳이다. 이 센터는 7년 전 아버지 하종오씨가 60년 가까이 모은 한국 전통 가요 연구 자료를 영암군에 기증하면서 설립됐다. 센터 1층은 한국가요 역사관이 들어서 있으며, 2층은 하춘화 단독 전시관으로 꾸며졌다.

"아버지는 '먼 훗날 대중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연구 자료로 쓰이도록 할 것'이라며 자료를 모으셨어요. 영암 트로트 가요센터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뤄진 곳이에요. 전시나 공연도 이뤄지지만, 무엇보다 아카데미와 교육이 핵심입니다."

하씨는 명예센터장으로서 후배 가수들을 위해 센터 내 프로그램들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센터를 통해 창작활동 지원, 신인가수 발굴, 아카데미 및 교육을 아우르며 후배 가수들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는 노래만 잘 해선 안 되고, 스피치나 춤, 순발력 같은 탤런트적 요소까지 갖춰야 합니다.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센터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갖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영암을 자주 들러 회의를 갖고, 교육의 큰 방향을 잡아갈 것입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9일 영암군 기찬랜드내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2층 하춘화 전시관에서 트로트 가수 하춘화씨가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 보물 된다

15~16세기 추정…'지리전서동림조담'도 지정 예고

백자에 푸른 안료로 그린 매화, 새, 대나무 그림이 있는 15~16세기 백자가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29일 이화여대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사진〉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높이 약 27.8cm 크기의 이 백자는 매화를 화면에 크게 배치했으며 다양한 새를 표현해 생동감을 강조했다. 청화 안료의 색조와 분위기를 잘 살려낸 데다 발색(發色)이 좋아 품격이 느껴진다. 수준 높은 회화 기법으로 볼 때, 도화서 화원이 참여한 조선 시대 관요(官窯) 백자로 추정된다.

푸른 안료인 청화 물감은 코발트 안료로 회회청이라 부르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1463~1469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안료를 썼다고 알려졌다.

국보 제170호 '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항아리'와 비교하면 뚜껑이 없어 온전한 한 벌이 아닌 점을 제외하면 정제된 태토와 문양이 매우 유사하다.

문화재청은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는 사용 계층과 제작이 제한돼 있어 희소성이 있다"며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돼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 고유의 청화백자를 제작할 무렵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평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풍수지리 교재인 '지리전서동림조담'(地理全書洞林照膽·상하 2권)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시설물 올해말까지 철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기장과 시설물이 12월말까지 철거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염주종합체육관의 아티스틱 수영장과 조선대의 하이다이빙 경기장에 임시 설치한 관람석, 풀, 다이빙 타워 등은 최근 철거가 완료됐다. 경영, 다이빙, 수구 경기가 열린 남부대의 주 경기장, 관람석, 시설물도 12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물 철거 작업이 끝난 남부대와 조선대에는 내년 2월까지 인조 잔디 축구장과 육상 트랙이 복원돼 3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 워터 수영이 열린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은 대회가 끝나고 곧바로 관람석과 시설물이 철거됐다. 염주체육관의 경우 임시 수조를 설치하려 뜯어낸 체육관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대부분 기존 시설을 사용하거나 임대 또는 임시 시설을 설치해 치러졌으며, 철거한 시설물은 재활용한다. 대회 기간 선수들이 임시 사용한 광산구 우산동의 선수촌도 내부 정비 공사를 하고 있다.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입주에 들어간다.

레거시(유산) 핵심 사업인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도 다음 달 초 부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광주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선정 공모에 들어가고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12월까지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부지를 선정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 부지 매입 등에 들어가고 2021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광주수영진흥센터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과 훈련시설을 갖추고 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한편, 광주세계수영대회는 7월 12~28일(17일간), 동호인들이 출전하는 마스터스대회는 8월 5~18일(14일간) 남부대·염주체육관·조선대·여수엑스포 해양공원에서 열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현직 대통령 첫 모친상…함경도 출신 실향민 연탄배달로 文대통령 뒷바라지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92·사진) 여사의 29일 별세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모친상을 치르는 첫 사례가 됐다.

문 대통령은 별세한 강 여사를 비롯해 부모와 관련한 이야기를 저서 '운명'에 비교적 자세히 서술해 놓았다. 문 대통령의 부모는 모두 함경남도 흥남 출신의 실향민이다.

부친인 고(故) 문용형 씨는 일본 강점기에 함흥농고를 나와 흥남시청에서 농업계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와 강 씨는 지난 1950년 흥남철수 때 피란민을 구출한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내려왔다. 경남 거제에 정착한 지 2년 만에 문 대통령이 태어났다.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1978년에 별세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부친은 가까운 친척과 함께 피란했지만 어머니는 혈혈단신 남쪽으로 내려왔다. 아버지가 하던 장사가 잘 풀리지 않은 탓에 문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 생계는 강 여사가 책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저서에서 강 여사가 생계를 위해 시장 좌판에 옷을 놓고 팔거나 연탄배달을 했다고 밝혔다.

2012년 초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문 대통령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일 때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고 기차 암표 장사를 하러 나갔다가 끝내 암표를 팔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75년 4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이송되는 날 호송차를 따르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北, 금강산실무회담 하루만에 거절

북한이 29일 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는 정부 제안에 기존의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정부가 금강산관광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대면협의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부정적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측은 시설철거계획과 일정 관련해 우리측이 제의한 별도의 실무회담을 가질 필요 없이 문서교환방식으로 합의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륵동 도로접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신안군 안좌면 자라리 576㎡ 투자에도 좋음 2200만원
•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창고 137㎡ 전망 좋음 2억5천
• 곡성군 옥과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음 1억9천
• 급매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 건너편 680㎡ 전원생활적합 3300만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농장 적합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959㎡ 전원생활에 좋음 2억8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접 48900㎡ 펜션 14개등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광천파출소 건너편 준주거 1259㎡ 병원 등 다용도 76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접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19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향심이 투철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특기 및 학업 성적 등 미래의 비전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학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및 선발인원
◈ 지원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 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에서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2018년 10월 1일 현재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부모를 둔 학생
◈ 선발인원
– 총 20명으로 하되, 영광군민 자녀 12명, 재광영광군향우 자녀 8명(예정)

2 선발방법 및 구비서류
◈ 선발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학생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 학생
◈ 구비서류
①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② 공적 조서(해당 분야 자료 사본 첨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성적증명서 1부
⑥ 통장 사본(본인 명의) ⑦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⑧ 글쓰기 작품 1점 : 수필, 자작시, 생활문(장학생에 선발된다면) 등 형식,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제출
※ 영광군청 추천 : 영광군 추천 양식에 의함(위 구비 서류는 공통)
※ 구비서류양식 :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lhmygg 참고

3 서류접수 및 선발예정
◈ 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처 : (우 61903) 광주광역시 서구 유림로 100 (동천동 혜천빌딩 7층)
– 전화 : (062) 522-8422/사무국장 김성수 010-4622-2397 (이메일 kss2377@hanmail.net)

◈ 선발 일정
– 접수 기간 : 2019년 11월 1일(금)~11월20일(수) 17:00까지
– 최종 선발 : 2019년 12월 초순 발표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및 개별 통보)
– 장학금 지급 및 장학증서 수여식
2019년 12월. 재광영광군향후회 송년의 날(12월말 예정)

4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제출하고, 재광영광군향우의 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사무국 사무실로 제출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